

W'one point uP



불필요한 것 비워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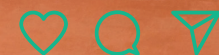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
한국서부발전의 소식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서북공감

전기로 만드는 행복



KOREA WESTERN POWER



W'one point uP

2025 MARCH — VOL123

#불필요한 것 비우기

#비움과 채움

#뜨개질, 비움의 미학

#정리의 가치

#여백이 있는 여행

#영양제 끓이는 법

불필요한 것 비우기

2025 서부인의
w'one point up

2025년 <서부공감>은 'One Point Up'이라는 테마로 찾아갑니다. 지금 도달 가능한 한 가지 목표를 세워 실천함으로써 나다움을 잃지 않는 자기계발을 'One Point Up'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작은 포인트를 실천해 나가며 나의 일상을 한 포인트 더 업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One Point Up의 첫 시작을 알리는 <서부공감> 3월호의 주제는 '불필요한 것 비우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비움'의 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비움·정리·청소는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분명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서부공감>, 그리고 2025년의 봄. 불필요한 것을 버리면서 시작해 볼까요?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한다는 말.

그 당연한 말이 왜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웠을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악착같이 붙잡고 있었는지. 욕심 때문이었을까,

혹시나 하는 노파심이었을까, 그도 아니면 비우기 위한 움직임조차 버거웠던 것일까.

그 어떠한 이유를 꺼내어 본들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

나의 공간, 나의 마음을 돌볼 것.



비워낼 결심.

제일 먼저 창문을 연다.

공간을 메우고 있던 답답한

공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간다.

창문을 연 김에 올려다본 하늘은

그야말로 청량함 그 자체.

오래된 소유를 비워내기에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있을까.





소통路

불필요한 것  비워내기

8
WP특독
◦
비웠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찾아왔다

10
원 포인트 업
◦
뜨개질을 통해
비움의 미학을 배우다

14
빛나는 만남
◦
공간크리에이터 이지영 대표가 전하는
'정리의 가치'

18
빛나는 그곳에
◦
마음에 여백이 필요할 때
사유의 시간 속을 걷는다, 사유원

24
한 번 더 UP
◦
오늘부터 영양제 다이어트
지금 가장 필요한 것부터 챙겨먹기

발행인 이정복 기획 정기웅, 조은지, 김예지 발행일 2025년 3월 21일
발행처 한국서부발전 홍보실 041. 400. 1298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기획·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02. 786. 2999



서부路

26
서부 라이브
◦
현장 소통·공감을 위한
CEO 타운홀 미팅

30
서부웨이
◦
커피 한 잔에 응원의 박수를!
공주건설본부 토건부

34
여기 어때?
◦
역사를 기억하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군산 카페신민회

36
서부 클럽
◦
축구 꿈나무들의 힘찬 슛!
새빛FC서포터즈

40
무엇보다 안전
◦
2025 안전경영책임계획

42
함께해요
◦
세계 최초 AI 음향 탐지 솔루션,
안전 관리의 '혁신' 선도! (주)로아스

44
따뜻해요
◦
핑크박스가 사랑을 타고
소녀들을 찾아갑니다

46
WP NEWS

50
독자마당

비웠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찾아왔다



채움 후엔 비움이 있고, 비움 후엔 새로운 채움이 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흘러간다.
서부인들의 비움 스토리를 소개한다.



올해 초급간부로 승격을 하면서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부서에 있었던 자리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열심히 자리를 정리하다가 문득 **‘비움으로 생긴 깨끗함 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비움이란 곧 새로운 시작입니다.

태안발전본부
2발전처 전기부
서동근 차장



저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퇴근 후, SNS를 끊어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허전함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족,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그 영향으로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발전처
발전운영실
박철우 차장



이번 겨울에 결혼하면서 많은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혼자 살 때 모아둔 잡동사니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면서 공간은 물론 마음까지 넓어졌습니다. **처음엔 아까웠지만 비움으로 새 시작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발전처
발전운영실
오윤택 주임



저는 초보아빠입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이것저것 사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으다 보니 집 안이 물건의 숲이 되었네요. 집에 놀러 온 한 동기가 저보고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더군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미뤘었던 비움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쓸만하지만 필요 없는 것들은 주변에 나누었고, 버릴 것은 모조리 버리니 집 안이 한결 깨끗해졌네요. 그만큼 제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기분탓인지 출퇴근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업무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비움 덕분인지 모를 일이지만 그렇다고 믿고 싶어요.

태안발전본부
1발전처 발전부
하동균 대리



45년간 전력 생산을 맡아오던 평택발전본부 기력발전소가 발전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함께 했던 동료들을 관외 발령으로 떠나보냈고, 기력발전의 가용자재와 공구들을 복합발전으로 이관받기 위해 작업실도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떠나 보내는 사람에 대한 아쉬움과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련이 남더군요. 하지만 **비워진 자리가 있기에 새로운 사람들, 우리의 발전을 위해 더욱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거겠죠? 힘차게 비우고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2025년 평택발전본부와 서부 직원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평택발전본부
발전기술실 계측제어부
이호일 사원



제 취미는 드론 비행입니다. 2015년 이후 구입한 드론이 무려 15개입니다. 그만큼 공간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했죠. 작년 12월에 싹 정리하여 현재는 필요한 것 딱 2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묵은 때를 벗겨낸 기분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비워진 공간은 무엇으로 채울까~**

서인천발전본부
발전기술실 발전부
정준범 차장



뜨개질을 통해 비움의 미학을 배우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넘쳐나는 요즘, ‘채움’보다 ‘비움’의 미덕이 필요한 때다. 특히 바쁘고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머릿속과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2025년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바늘과 실에만 집중하는 ‘손뜨개질’을 통해 비움의 미덕을 배워본다.

감성을 어루만지는 손뜨개의 매력

따뜻한 봄기운이 솔솔 불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현대인들의 마음은 차가운 겨울처럼 척박하기만 하다. 뒤흔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느라 하루하루 바쁘고 버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저히 닿을 것 같지 않는 목표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과부화가 걸리기 마련. 이런 현대인들에게는 채움보다 비움을 통해 잠시 나를 돌아보는 작은 포인트가 필요하다. 서부발전 직원들은 업무에서 벗어나 ‘손뜨개질’을 통해 머릿속을 비우고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준생 때 취업에 실패하면 수세미를 뜨면서 탈락의 아픔을 해소했던 기억이 있어요. 코바늘로 실을 뜨면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슬픔도 잊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 그런 좋은 기억 때문에 올겨울에 뜨개질을 하려고 실을 잔뜩 샀어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배워서 수세미보다 더 난도 높은 작품을 완성하고 싶어요.”

서인천발전본부 시설관리부 김혜수 사원이 뜨개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다. 잠깐이지만 경험이 있는 김혜수 사원과는 달리 뜨개질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본사 해외신사업처 사업운영부 고명수 주임은 첫 뜨개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는 뜨개질에 대해 잘 몰랐는데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평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무생각 없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집중하면서 머릿속을 비우고 여유를 갖고 싶었거든요. 평소 여가시간에 전시·공연을 관람하거나 책 읽고 영화 보는 것을 주로 했는데 새로운 취미활동을 배우게 돼서 기대됩니다.”

뜨린이도 쉽게 완성할 수 있는 ‘망뜨개 카드지갑’ 만들기

오늘 만들 작품은 ‘망뜨개 카드지갑’! 뜨개질을 못하는 뜨린이도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작품이다. 우선 도안을 그릴 망을 준비하여 카드지갑의 크기에 따라 앞뒤판을 자른다. 망을 재단한 후에는 각자 좋아하는 색의 실을 선택하고 실을 바늘에 꿰는다. 서인천발전본부 계측제어부 이하늘 사원은 뜨개질이 처음이라 바늘에 실을 꿰는 것도 쉽지가 않다. “한 번도 뜨개질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신청했어요. 평소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책을 읽거나 주로 걷는데요. 뜨개질도 머릿속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는 데 좋은 취미활동이 될 것 같아요. 색색깔의 실도 너무 예쁘고 촉감도 폭신하니 좋아서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실 꿰는 것도 해매고 있는 이하늘 사원과는 달리 서인천발전본부

발전부 이유민 주임은 무척 능수능란한 손놀림을 자랑한다. “평소 뜨개질에 관심이 많았어요. 가끔 수세미를 뜨는 정도지만 기회가 되면 전문적으로 배워서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손뜨개를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비울 수 있고 예쁜 결과물까지 얻을 수 있어서 성취감도 생겨요.”

파랑, 분홍, 보라, 노랑 등 색색의 실을 사선으로 바늘에 꿰어 헤링본 뜨기로 앞판과 뒤판을 빠르게 완성한다. 실을 길게 뽑아 엉키기도 하고 코를 잘못 꿰는 실수를 반복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손이 능숙하고 빨라진다. 조금씩 익숙해지자 근황, 취미, 사업소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는다. 옆 동료가 하는 것을 견본질하고 모르는 것은 서로에게 물어보며 화기애애하게 뜨개질이 계속됐다.



비움과 채움의 균형

직원들은 뜨개질의 장점으로 ‘단순작업을 통해 머릿속의 복잡함을 비울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그렇다면 2025년 각자 비우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모두 한목소리로 ‘욕심’을 꼽았다. 욕심이 많아 이것저것 시작만 하고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것이 많다는 고명수 주임, 여행을 가도 뻑뻑이 계획을 세우고 식당에 가도 먹고 싶은 것이 많아 감당도 못 할 양을 시켜 항상 후회한다는 이하늘 사원이다. 이유민 주임은 일단 하고 싶은 건 저지르고 보는 욕심을 이야기했다. 관심 분야가 많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올내는 꼭 이를 거라는 마음을 내비쳤다. 김혜수 사원은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를 좀 덜어내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반면에 비움 속에서도 꼭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가족’, ‘돈’, ‘식욕’, ‘자기만의 시간’ 등 여러 가지 답변이 뒤엉켜 나왔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앞판과 뒤판을 완성한 뒤에는 마지막으로 앞뒤판을 감침질로 연결하여 고리를 달면 완성~! 역시 경험 많은 이유민 주임과 김혜수 사원이 먼저 완성하고 뒤이어 이하늘 사원과 고명수 주임도 첫 뜨개 작품을 완성했다. 직원들은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완성한 카드지갑에 사원증을 넣고 다니겠다고 만족스러워 했다. 체험에 참여한 직원들 모두 손뜨개질로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것을 채워 넣으며 균형 있는 한해를 보내고픈 바람을 나타냈다.

Interview

Interview – 1



김혜수 사원

바늘을 움직일 때마다 실이 하나씩 꿰어지는 게 흥미롭고 뿌듯했어요. 원래 언니에게 선물하려고 했는데 완성품이 너무 예뻐서 제가 쓰고 싶어요. 뜨개질을 하는 과정도 재미있는데 예쁜 결과물까지 얻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워요.

Interview – 2



이유민 주임

오늘 작품은 저한테는 조금 수월했어요. 다음에는 더 어렵고 예쁜 작품에 도전하고 싶어요. 뜨개질을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취미로 뜨개질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

Interview – 3



이하늘 사원

첫 작품이라 중간 중간 매듭의 흔적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다시 또 도전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실의 촉감도 좋고 계속 집중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시간도 잘 가는 것 같아요.

Interview – 4



고명수 주임

평소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시작은 많이 하는데 완벽하게 마스터한 취미가 없어요. 올해는 하나라도 만족할 만한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취미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뜨개질을 처음 접했는데요. 복잡한 마음도 정리되고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간크리에이터
이지영 대표가 전하는
‘정리의 가치’

불필요한 것을 비움으로써 얻어지는 것

물건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은 그 자체로 기분을 상쾌하게 만든다. 정돈된 분위기 속에서는 마치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긴다.

공간크리에이터 이지영 대표는 정리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얻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는 순간,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다.



비움, 버림이 아닌 남김의 과정

이지영 대표가 말하는 '정리'의 시작은 '비우기'다. 비우기의 핵심은 물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남기며, 불필요한 것은 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리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이다.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비워내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는 공간을 비우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백이 주는 효과 때문이에요. 여백은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비움은 과거의 내가 필요했던 물건이나 미래의 내가 필요할 물건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위한 물건만 남

tip

업무 공간 정리를 위한 조건

사무 공간을 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무실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개개인이 일하는 사무 공간은 업무를 위한 장소일 뿐,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개인 물품만 두고, 공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회사 차원의 노력도 필요해요!

사무 공간 정리를 개인의 방식에 맡겨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 회사 차원의 공간 개선 노력이 우선되어 이를 통해 일관된 사무 공간을 유지하며, 직원들이 더욱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긴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지영 대표는 "비움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말한다. 물건을 치우고 공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들에 가려졌던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경험을 얘기하면, 올해 초에 장르별로 책장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자기계발서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너무 나를 닦달하며 살았구나' 싶었어요. 사실 저는 소설이나 시집을 매우 좋아하던 사람이었거든요(웃음). 그래서 올해는 두 달에 한두 권 정도는 소설과 시집을 읽으며 나에게 영감을 주자고 마음먹었어요. 정리를 통해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 거죠." 이지영 대표는 "정리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리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지영 대표는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나를 위한 최적의 공간을 만들자!

물건을 비우면 비로소 감춰져 있던 '공간'이 드러난다. 이지영 대표는 "사람이 우선인 공간, 라이프스타일에 맞으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공간이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정관념 때문에 불편을 불편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

"거실, 안방, 주방 등 공간에 붙여진 이름은 편익상 지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름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가장 넓고 채광이 좋은 거실에는 대개 소파와 TV를 놓죠. 요즘은 TV를 잘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실에 커다란 식탁을 놓고 가족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아이의 놀이방으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피트니스 룸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많은 집이라면 안방을 잠자는 공간으로 국한하지 않고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다면 공간은 달라질 수 있다. 나 자신을 관찰하고 취향을 발견하는 것이 공간 재구성의 첫걸음이다. 이를 통해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를 넘어, 나만의 편안하고 창의적인 환경으로 변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공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나 자신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

이지영 대표는 정리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지 말라고 조언한다. 결국, 정리는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리를 '한 번에 다 해야 한다'거나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랍 하나부터 정리

하다 보면 점차 재미가 붙을 수 있어요. 지금의 나를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무언가 시작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대로 돌아올 집인데 왜 정리하고 청소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공간에 살아보는 것은 다이어트와 같아서, 한 번 좋은 상태를 경험한 사람은 작은 노력이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언젠가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 속도는 점점 느려질 것입니다."

이지영 대표는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곧 인생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공간이 바뀌면 기분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면 매일의 일상도 바뀐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달라지면, 결국 우리의 인생도 달라진다. 작은 정리로 시작해, 매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경험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



만물이 소생하는 봄. 겨우내 얼어 있던 땅이 녹으며 새싹이 얼굴을 내밀었다. 우리는 여전히 묵은해의 근심과 생각을 비우지 못한 채 봄을 맞이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라는 말처럼, 잘 비워야만 좋은 생각으로 다시 채울 수 있다. 비움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연을 벗 삼아 목적 없이 걷는 것이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숨 돌릴 여유를 찾고 싶다면, 대구 군위군에 자리한 사유원으로 떠나보자.

마음에

여백이
필요할 때



©김종오 사진작가

사유의

시간 속을
걷는다

사유원



모과나무와의 인연

70만㎡의 넓은 부지에 조성된 사유원은 대충 돌아봐도 3~4시간이 소요된다. 머무는 동안 느려진 걸음 탓에 하루가 짧게 느껴지기도 한다. 사유원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생각하는 곳이다. 하루에 정해진 인원만 입장 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이 드물다. 자신만의 속도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어린 시절, 식탁에 놓아둔 모과는 그윽한 향기로 집 안을 가득 채웠고, 차에는 방향제 대신 모과 열매를 놓았다. 요즘 도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추억의 모과나무를 사유원에서 만날 수 있다. 산 중턱에

사유원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생각하는 곳이다.

사람과 자동차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자리한 ‘풍설기천년(風雪幾千年)’이라고 불리는 정원은 사유원의 탄생을 알리는 곳이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108그루의 모과나무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샀는지를 기록한 이름표가 붙어있다. 태창철강 유재성 회장은 오래된 모과나무가 일본으로 반출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단번에 달려갔다. 이때 웃돈을 주고 산 모과나무 4그루와의 인연은 사유원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모과나무를 팔기 위해 유 회장을 찾아왔다고 한다. 많아진 수목을 옮겨심기 위한 넓은 부지가 필요해졌고, 지금의 자리가 낙점되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사유의 공간

입구에서 나눠주는 생수 한 병을 챙겨 사유의 공간에 들어섰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즈음, 회색빛 콘크리트 건축과 마주한다. ‘자유롭게 거니는 집’이라는 의미를 지닌 ‘소요헌(逍遙軒)’.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로 시자가 설계한 작품이다. 그는 1992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국내에는 파주 미메시스 아트뮤지엄, 안양 파빌리온, 아모레퍼시픽 용인연구소가 그의 손길을 거쳤다.

소요헌은 서양 건축가의 시선에서 동양 철학을 담은 명상 공간이다. 자연과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축가의 철학이 곳곳에 녹아있다. 기하학적인 노출 콘크리트 건축에 자연의 빛을 끌어들었다. 시선이 만나는 곳에는 실록 가득한 중정을 두

었다. 안쪽 공간에는 전쟁의 참상을 상징하는 붉은색 철제 조형물이 걸려 있다. 긴 장감이 감도는 어두운 공간을 비추는 한 줄기의 빛은 희망을 말하는 듯하다. 사유원에는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이 준비하지만 정작 이곳의 주인공은 자연이다. 대부분 건축물은 땅속에 묻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소대(巢臺)만큼은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준다. 소요헌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는 건축가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새 둥지’라는 의미를 지닌 소대는 팔공산 쪽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내부 계단을 오르는 동안 사방으로 열린 창을 통해 자연의 변화를 매 순간 감상할 수 있다. 마침내 올라선 정상에서는 팔공산 능선이 눈앞에 펼쳐진다. 작고 고요한 예배당 ‘내심낙원’도 알바로 시자가 설계한 작품이다.



자연과 건축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진 숲

사유원 건축은 여러모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방문객의 발걸음이 빨라질 때마다 이따금 만나게 되는 건축은 쉼터 역할을 한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고 대화를 걸어오는 것 같다. 사유원 설립자와 인연이 깊은 승효상 건축가의 손길이 곳곳에 닿아 있다. 첫 번째로 지어진 현암(玄巖)도 그의 작품으로, 작은 방으로 들어가면 장대한 자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물의 정원에 우뚝 서 있는 ‘조사(鳥寺)’는 새를 위한 공간이다. 훗날 무너져도 보수하지 않을 예정이란다. 건축자재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재를 사용했다. 건축가의 의도를 알아차린 새들이 모여들어

둥지를 틀며 아름다운 소리를 선물했다. 명정(暝庭)은 있는 듯 없는 듯하여 그냥 지나치기 쉽다. 주변은 탁 트여 있어 누가 봐도 전망대를 세우기 좋은 자리처럼 보인다. 승효상 건축가의 선택은 전망대가 아닌 자연 지형에 순응한 명상 공간이었다. 좁고 긴 계단을 따라 내려가도록 설계되어, 마치 고분이나 왕릉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긴 진입로를 돌고 돌아 마주한 장면은 물에 반영된 하늘과 빛뿐이다. 명정은 사유원에서 느낀 감정을 마음에 담아가기를 바라는 건축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눈을 감고 벽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에 귀 기울이며 명상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 건축가는 내심 이 자리에 짓지 못한 전망대가 아쉬웠는지, 더

사유원 思惟園

주소	대구 군위군 부계면 치산효령로 1176
시간	09:00~17:00 (15시 입장마감)
휴무	매주 월요일 정기 휴무
입장료	대인 평일 50,000원 주말 69,000원 학생 평일 45,000원 주말 62,000원

높은 곳에 있는 물탱크에 외벽을 둘러 ‘첨단’이라는 전망대를 만들었다. 발걸음이 무더질 즈음, 앉아서 쉴 수 있는 전통 정원 ‘유원(瀏園)’이 나타난다. 설립자가 평생 수집한 돌과 소나무를 모아 조성한 정원이다. 유재성 회장의 호를 따서 이름 지은 ‘사야정’ 마루에 앉아 눈을 감아본다. 아직은 찬 기운이 느껴지는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함께 실려 온 진한 솔향기는 머리를 맑게 한다. 작은 계곡에서 흐르는 물줄기를 모아 만든 연못 덕분에 청량한 소리까지 들리는 완벽한 쉼터다. 아침부터 고박 걸어온 사유원의 마지막 여정은 누워있는 수도원 ‘와사(瓦寺)’에서 끝난다. 3개의 연못 위에 긴 철제 구조물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에 스며들어 하나가 된다.
철제 프레임과 천장에 뚫린
구멍을 통해 자연을 감상하며
유유히 떠 있는 구름에
근심을 흘려보낸다.
긴 터널을 빠져나오니
비로소 비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이 놓여 있는 형태다. 페인트를 칠하지 않은 와사는 비를 맞으며 자연스럽게 녹슬어 간다. 사유원 건축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에 스며들어 하나가 된다. 철제 프레임과 천장에 뚫린 구멍을 통해 자연을 감상하며 유유히 떠 있는 구름에 근심을 흘려보낸다. 긴 터널을 빠져나오니 비로소 비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사유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올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유원은 진정한 휴식과 비움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이곳에서 일상의 무게를 내려두고 마음에 여백을 만들어 보자.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건강의 변화. 삼시세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쉽던가. 그 덕에 영양제 종류도 하나둘씩 늘어난다. 이정도 되면 이런 생각이 든다. 영양제, 이것 또한 불필요한 건 줄여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부터 챙겨 먹으라고. 오늘부터 영양제 다이어트 들어간다!

오늘부터 영양제 다이어트

지금 가장 필요한 것부터 챙겨먹기



피로 회복을 위한 영양제



비타민 B군

피로 회복을 중점으로 둔다면 다른 무엇보다 챙겨야 하는 1순위는 비타민 B군이다. 기본적으로 비타민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에 필수 성분이다. 균형잡힌 식사가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장바구니에 담아야 하는 영양제이기도 하다. 특히 비타민 B군은 스트레스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마그네슘

평소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누적이 심하다면 마그네슘 섭취가 1순위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경직된 근육을 이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마그네슘은 다른 성분들보다도 컨디션 개선 효과가 뛰어나고, 필수 영양소로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에도 관여하고 있다.



피로 회복을 위한 꿀조합은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한 가지 영양제만 먼저 시도하고자 한다면 비타민 B군을 먼저 섭취해 보길 권한다.

눈 건강을 위한 영양제



빌베리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증 작용으로 눈을 보호하는 빌베리. 모양체근 이완 효과로 눈의 피로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효과로 빌베리의 눈 피로 개선 효과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눈 건강에 있어 최고의 선택지가 된다.

오메가3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 기기와 뗄 수 없는 현대인들에게 건조한 눈은 흔한 증상이 되었다. 이에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보이는 거의 유일한 성분이 바로 오메가3다.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 눈 따끔거림, 후끈거림이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면 오메가3 섭취를 권장한다.



눈 건강을 위한 꿀조합은 빌베리와 오메가3. 눈 피로감 완화가 목적이라면 빌베리, 안구 건조증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오메가3를 먼저 섭취해 보길 권한다.

간 건강을 위한 영양제



밀크시슬

밀크시슬에 함유된 실리마린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간과 혈관을 보호하고 간 효소 생성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 성분 덕분에 밀크시슬 섭취로 간을 보호하고 컨디션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탁월하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간 조직에 대한 치료 효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산균

짙은 음주는 장내 세균 증가에 큰 역할을 한다. 결국 이것이 간 손상에도 영향을 준다. 유산균은 손상된 간과 장에 도움을 주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성분이다. 간과 장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유산균은 좋은 선택지다.



간 건강을 위한 꿀조합은 밀크시슬과 유산균. 한 가지 영양제만 먼저 시도하고자 한다면 밀크시슬을 권한다.

관절 건강을 위한 영양제



보스웰리아

보스웰리아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으로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있어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영양제다. 하지만 장기간 섭취 시에도 그 효과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단기간 효과를 원한다면 보스웰리아는 1순위로 챙겨야 할 성분이다.

콘드로이틴

꾸준한 관절 관리를 위한다면 콘드로이틴 영양제를 권한다. 통증 완화는 물론 관절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보스웰리아와 달리 1년 이상 복용했을 때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콘드로이틴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통증이 심할 때에는 단기간적으로 보스웰리아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관절 건강을 위한 꿀조합은 보스웰리아와 콘드로이틴. 보스웰리아는 단기간 빠른 염증 완화 효과를 위해, 콘드로이틴은 장기간 관절 관리를 위해 섭취하는 것을 권한다.

현장 소통·공감을 위한
CEO 타운홀 미팅



지난 2월 19일, 본사 1층 나눔마당에서 '현장 소통·공감을 위한 CEO 타운홀 미팅'이 개최됐다. 이 자리는 이정복 사장과 직원들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회사의 미래 비전과 경영 방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값진 시간으로 꾸며졌다.

서부발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소통의 시간

변화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현장 소통·공감을 위한 CEO 타운홀 미팅'은 이정복 사장이 직접 직원들과 경영 현안을 공유하고 투명·윤리경영 실행력을 높여 구성원 간 신뢰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정복 사장은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우리의 현재 위치와 에너지 기업으로서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전량 감소, 환경 규제 강화,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 여러 도전 과제가 있지만, 직원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회사의 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정복 사장은 직장인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에 대해 설명하며,

'전문성', '긍정적인 마인드와 투지', '공감 능력', '도덕성 및 윤리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 이정복 사장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조직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긍정적인 마인드와 투지는 문제 해결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공감 능력은 직장 내 소통과 갈등 해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도덕성 및 윤리성은 회사의 신뢰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장인으로서의 덕목을 잘 갖추는 것이 회사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직원들이 이러한 덕목을 바탕으로 더 나은 직장 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부발전의 밝은 미래,
우리의 '자긍심'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CEO 타운홀 미팅의 마지막 순서는 '내일의 리더가 묻고 오늘의 리더가 답한다'는 부제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고 이 정복 사장이 이에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사장 과 일선 직원 간의 벽을 허문 즉문즉답 형식의 소통을 통해 회 사의 현안, 조직 문화, 인재상, 건의 사항 등 다양한 주제에 대 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이정복 사장은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해야 할 시기” 라고 강조하며, “자긍심은 직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 는 원동력이자,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서부인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자긍심을 갖기 바란다. 그것이 서부발전의 미래를 더욱 희망차게 만들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부발전 직 원들의 10년 후 미래를 위해 성공의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이 짐으로 경영활동에 나서겠다. 아울러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 원 칙을 바탕으로, 앞으로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 초심, 공감의 소통



CEO 타운홀 미팅 1부 순서는 '서부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 행되었다. 화력발전 폐지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서부발전만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원의 확대와 맞물려 새로 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해법과 미 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해상풍력 중심의 신재생 발전을 확대하고 해외로는 중동지역을 전초기지로 태양광·가스복합 발전사업에 주력해 궁극적으로는 그린수소·암모 니아 생산, 발전까지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서부발전의 단기·중장기 경영전략 등을 설명했다.

일하는 환경의 변화와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전했다. 이 정복 사장은 “업무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자주 '왜?'라는 질문을 던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왜?'라는 질문은 업무의 목적과 의미를

되새기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초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새로 운 직장에서 시작할 때의 각오나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나갔을 때, 또는 대학에 진학할 때의 열정과 목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 차 흐려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초심을 점검하고 정립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30대, 40대, 50대가 되어도 초심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고, 그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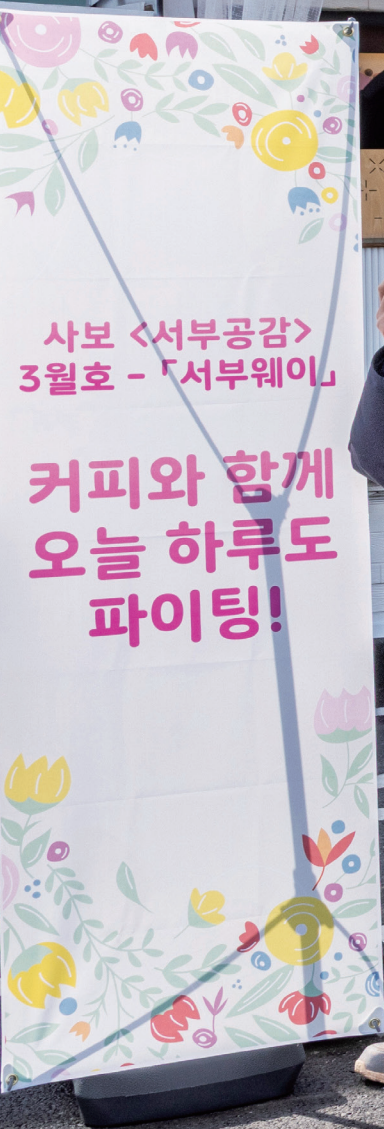
이정복 사장은 회사와 개인의 성장을 위한 '소통'에 대해서도 당부 했다. 이정복 사장은 “우리는 세상을 흑백으로만 판단하려는 경향 이 있다. 소통과 대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회색존'을 인정하는 것이다. 회색존은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사고방 식을 제공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공감의 마음으로 소통 할 때, 더 나은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공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 현장에 진한 커피 향기가 퍼졌다. 사보 <서부공감>이 공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힘쓰고 있는 토건부에 커피차를 보내 응원에 나선 것이다. 허허벌판의 건설 현장에 부는 찬바람 탓에 커피의 온기가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토건부 구성원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커피 한 잔에 응원의 박수를!

짹 짹 짹!



지금 우리는 공주천연가스발전소

콘크리트 타설 중

이른 아침에도 공주건설본부는 활력 가득한 모습이다. 공주건설본부는 태안화력 2호기를 대체, LNG 연료로 전환할 공주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 중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토건부를 비롯해 공사관리부, 기계부, 전기부 등 60여 명의 서부발전 구성원이 동고동락하고 있는 공주건설본부는 현재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되고 있다. 공주천연가스발전소의 시공은 약 15만 명의 지역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준공

이후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물론 발전소 운영으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발전소 건설의 핵심 부서인 토건부는 공주천연가스발전소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구조물 건설을 위한 토건 분야의 건설사업관리를 담당한다. 토목 파트와 건축 파트 총 11명의 구성원이 한 마음, 한뜻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토건부의 하루는 이른 아침 작업 사항과 중요 사항을 정리해 감독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작업장과 가시설 상태, 작업 절차 속

위험성 유무를 확인하고 공정, 품질, 안전 등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 뒤 사무실에 와 설계도서 검토, 서류 작업을 합니다”라는 정상우 부장은 바쁠수록 안전을 더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발주자, 도급자, 작업자 구분 없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작업 단계별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지도활동을 실행합니다. 현재 부서원 전체가 안전 분야 국가기술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공부함으로써 전문 역량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응원

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는 곳 주변은 혼한 편의점조차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커피차를 더 반가워하는 분위기다. “카페라테 한 잔, 캐모마일 한 잔이요!”라며 주문에 나선 토건부 직원들. 아메리카노, 바닐라라테 등의 커피부터 청포도·레몬 에이드, 차 등의 음료를 비롯해 조각 롤케이크까지 맛볼 수 있었다. 캐모마일 차를 주문한 송윤철 차장은 “하루하루가 똑같은 일상인데, 커피차 등장에 기분 전환이 돼요!”라고 말했고, 달콤한 바닐라 라테를 주문한 김동혁 차장은 “커피차는 연예인들만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 부서에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팬클럽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무엇보다 고생하고 있는데 응원받는 느낌이 들어 힘이 납니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차 한 잔씩 들고 정상우 부장을 중심으로 뱅 둘러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즐거움 그 자체다. 토건부의 유쾌함은 유머러스한 정상우 부장에서 시작한다는 게 토건부 구성원들의 이야기다. 이들의 정례 행사만 봐도 부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각자 새해 목표를 세워 공유하고 연말에 성공, 성장 여부를 확인해 축하하고 격려

**커피차는
연예인들만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 부서에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팬클럽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무엇보다 고생하고 있는데
응원받는 느낌이 들어 힘이 납니다!**



해도를 높이고, 또 다소 서먹했던 업무 관련 담당자들과 웃으면서 소통하게 된다. 1회 최우수 발표자에 토건부 이혁진 대리가 수상해 타 부서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발전소 준공과 함께

토건부도 성장해 있을 것

발전소 건설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3여 년의 시간이 절대 쉽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는 토건부원들.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모습을 달리하는 현장의 모습을 보며 느끼는 성취감, 보람 또한 이루어 말할 수 없기에 하루하루 충실히 자신의 몫을 다해낼 뿐이다.

“앞으로 구조물공사, 철골공사 등 고위험 공사를 집중 관리하고 안전취약분야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건설사업관리 최적화로 공사 기간을 준수하고 품질을 확보해 사용자 중심의 명품발전소를 건설할 것입니다”라는 정상우 부장은 마지막으로 부서원들에게 응원과 당부의 말을 잊지 않고 전했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 우뚝 서 있을 발전소처럼 우리 또한 성장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며, 늘 도전합시다. 토건부 파이팅!”



역사를 기억하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군산발전본부에서 차로 약 5분 떨어진 곳에 자리한 카페신민회. 적산가옥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카페다. '일제 수탈의 역사'라는 오래된 생채기를 안은 채 한국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의미 있는 군산의 히든 플레이스다.

info 전북 군산시 구영7길 55
월요일~일요일 11:00~21:30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으로

골목에 자리한 한 적산가옥. 입구에 걸려 있는 하얀 태극기. 간판에 한자로 새겨진 '新民會'. 이 자체만으로도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적산가옥을 개조한 군산 힙플레이스, 카페신민회다. 1930년대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군산에서 일본식 주택과 민족의식의 결합이라는 콘셉트가 스며든 공간이다. 역사를 기억하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창조해 내어 더욱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다. 외관은 일본식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함께 누릴 수 있어 더욱 오래 머무르고 싶은 카페다.

시간 여행을 떠나게 하는 마법의 공간

카페로 들어서면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과 신채호 선생의 초상화, 그때 그 시절에 있을 법한 다양한 생활 소품이 자리하고 있다. 문 하나 사이로 시간 여행을 한다면 바로 이런 기분이 아닐까. 콘셉트에만 충실해 정작 커피와 디저트에 소홀했다면 카페신민회는 입소문 타지 않았을 테다. 호떡과 아이스크림이라는 절대 실패 없는 조합의 호떡크로플, 꾸덕꾸덕한 치즈의 풍미를 자랑하는 바스크치즈케이크, 산미가 별로 없어 고소한 느낌을 주는 아메리카노. 무엇을 고르든 힐링의 시간을 약속한다. 여기에 더해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만드는 태극기 모양의 쿠키가 오랫동안 여운을 남긴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속으로 외쳐본다. 대한독립만세!



서부발전에는 아주 특별한 동호회가 있다. 바로 ‘새빛FC서포터즈’! 태안 사택 내 직원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유소년 축구팀이다. 서부발전 직원들이 아닌 그들의 자녀가 활동하는 동호회는 ‘새빛FC서포터즈’가 유일하다. 부모들의 서포트를 받아 열정과 재능을 무럭무럭 키워나가고 있는 새빛FC서포터즈는 지난해 우수동호회로 선정되며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축구 꿈나무들의 힘찬 슛!



새빛FC서포터즈

새빛FC서포터즈의 탄생

아이들의 겨울은 유난히 길다. 바깥으로 나가 뛰놀며 에너지를 발산해야 하는데, 추운 날씨 탓에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활동량이 줄어 몸이 근질근질한 아이들 때문에 괴로운 건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실내에서 부대끼며 놀아주다 보면 지치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하루가 참 길다. 그래서일까.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들도 새빛FC서포터즈 모임이 있는 날을 학수고대한다.

“지난 2023년 겨울,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을 위해 축구팀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하다 동아리를 창단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몇몇이 모여 축구공을 차며 노는 정도로 소소하게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규모를 갖춘 유소년 축구팀을 만들어 좀 더 체계적인 훈련과 경기를 하고 싶어서 태안 사택 내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냈어요. 생각보다 많은 인

원이 모였고 현재 초등학교 1학년~3학년 16명으로 구성된 ‘새빛FC서포터즈’ 유소년 축구팀이 완성되었습니다.” 동호회를 처음 제안한 건설처 전원기획실 최철원 차장이 동호회 탄생 과정을 설명했다. 현재 당진시민축구단 소속의 현역 선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1시간동안 훈련을 한다. 30분은 기초체력 훈련을 하고 30분은 강사를 주축으로 팀을 나누어 연습경기를 한다. 나머지 1시간은 자유롭게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예전에는 아이가 집에서 TV나 핸드폰만 봤는데 동호회를 시작하면서 실외 활동이 늘고 운동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특히 승부욕도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동호회 활동으로 체력도 좋아지고 생활태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3학년이 된 아들과 함께 체육관에 나온 태안발전본부 3발전처 환경설비부 김승식 부장이 동호회 활동 이후 달라진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했다.





새빛FC서포터즈를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우다

이른 봄을 시가하듯 바깥 날씨가 아직 쌀쌀하지만 언제나처럼 체육관은 아이들의 에너지와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첫 번째 시간은 훈련 기구를 이용한 트레이닝. 강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아이들의 동작이 제법 재빠르고 정확하다. 체육관 한 쪽에서 지켜보는 부모들은 아직 어리지만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대견하기만하다.

“원래 축구를 좋아해서 외부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다녔었어요. 그런데 사택 내에 축구교실이 생긴다고 해서 옮기게 되었는데 무척 만족해요. 강사님이 아이들 한명 한명이 모두 재능을 발휘

아이들의 열정으로 빠짐없이 성실하게 동호회 활동을 하다보니 작년에는 ‘우수동호회’로 선정되는 기쁨도 있었어요. 덕분에 상금을 받아 아이들에게 멋진 유니폼을 맞춰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미비하지만 앞으로 더욱 실력을 쌓아 다른 유소년 축구팀과 함께 친선경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실전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어요.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팀 내 친구들과, 동생들과 어울리면서 협동심도 많이 생겼어요. 예전보다 실력이 늘고 아이도 즐거워해서 무척 만족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함께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는 수소에너지처 수소사업실 박준수 차장이 이야기했다.

훈련을 마친 후에는 반으로 팀을 나눠 연습경기가 시작됐다. 시작 휘슬이 울리자 아이들은 공을 차지하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였다. 공을 차지한 팀이 골대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자 수비를 위해 상대팀도 재빠르게 뒤쫓는다. 힘들어도 끝까지 볼을 놓치지 않는 아이들의 열정만은 어느 프로선수들 못지않다. 치열한 접전 끝에 골을 넣은 아이들은 부모 앞으로 달려와 세리머니를 하며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밖에서 지켜보는 부모들도 함께 즐거워하며 아이들을 응원했다.

“아이들의 열정으로 빠짐없이 성실하게 동호회 활동을 하다보니 작년에는 ‘우수동호회’로 선정되는 기쁨도 있었어요. 덕분에 상금을 받아 아이들에게 멋진 유니폼을 맞춰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미비하지만 앞으로 더욱 실력을 쌓아 다른 유소년 축구팀과 함께 친선경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실전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어요. 유소년 축구팀 새빛FC서포터즈 동호회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동호회 총무를 맡고 있는 인재경영처 인재육성부 김양욱 대리가 앞으로의 포부를 이야기했다.

먼 훗날 새빛FC서포터즈에서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우리는 새빛FC 서포터즈!

새빛FC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축구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해서 호날두처럼 멋진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대인발전본부 3발전처 환경설비부

김승식 부장
자녀 김현승 학생



선생님이 있는 축구팀 경기 개막전 때 에스코트키즈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선수들을 보며 저도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건설처 전원기획실

최철원 차장
자녀 최은우·최진우 형제



작년부터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공격수로 골을 넣을 때가 가장 기쁘고, 골 넣고 세리머니 할 때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멋진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수소에너지처 수소사업실

박준수 차장
자녀 박주원 학생





2025 안전경영책임계획

안전 서부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서부발전. 이를 위해 지난 1월 14일 태안 본사에서 안전혁신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서부발전과 협력사가 참석하여 안전 이슈에 대해 소통하고 안전혁신 방안에 대해 토론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위피와 함께 슈승!

안전경영책임계획
비전

Safety Together, Create Future

함께하는 안전경영으로
서부발전의 미래를 창출한다!

산업재해 & 안전사고
사고 사망자수 &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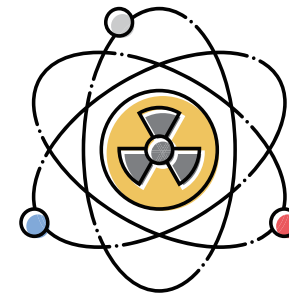
0명 달성 목표

- 안전 최우선 현장 업무체계 확립을 통한
근로자 생명·건강 보호
- 발전설비 정비·보강을 통한
중대재해 및 대형 재난 예방

4개 분야 17개 추진과제

• 작업장 안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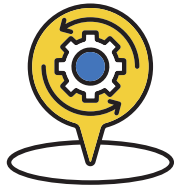
- ① 본사 주관 상시 점검 체계 정착으로 안전사고 제로 달성
- ② 위험성평가/PSM 안전 전문가 양성으로 현장 작동성 제고
- ③ 발전소 가스시설 안전진단 수행으로 설비 사고 예방
- ④ 신재생 사업장 안전관리 표준모델 정립



• 건설현장 안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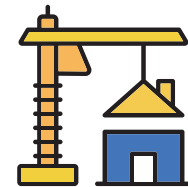
건설현장

- ⑤ 위험요소 발굴 및
감소 대책 설계 반영
- ⑥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



건설공사

- ⑦ 발주자
안전보건관리지침 개정
- ⑧ 중대재해
대응훈련 시행



• 시설물 안전 •

- ⑨ 디지털 기술 활용 시설물 안전점검 방식 개선
- ⑩ 시설물 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구축
- ⑪ 풍수해 대비 시설물 교차점검으로 재난역량 제고
- ⑫ 스마트 보호구 도입 및 안전플랫폼 현장 활용성 확대



• 기타 안전 •



- ⑬ 無탄소 발전분야 안전관리 기술개발
- ⑭ WP-안전등급제 고도화로 협력기업 안전수준 향상
- ⑮ 발전5사 공동 산업보건의 운영으로 질병재해 예방
- ⑯ 표준작업절차(SOP) 재정비로 현장작동성 고도화
- ⑰ 디지털 트윈 종합화재방호시스템 활용도 제고

세계 최초 AI 음향 탐지 솔루션, 안전 관리의 ‘혁신’ 선도!

(주)로아스



이재현 대표

세계 최초로 ‘소리’로 안전관리를 하는 혁신적인 음향 진단 솔루션 기업 (주)로아스. 출범한지 불과 5년 째인 스타트업기업이지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솔루션 제공을 비롯해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음향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는 안전관리 솔루션으로 서부발전의 안전 지킴이로도 협업하고 있는 로아스의 이재현 대표를 만나보았다.

제품 품질 검사 및 설비 이상까지

AI 안전관리 솔루션

소음과 생산설비가 가득한 공장 안을 돌아다니던 로봇이 기계 장치에서 미세한 이상 음향 데이터를 수집 후 그 위치를 영상으로 관제센터에 전한다. 바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소리 중에서 문제 상황을 진단해 관리하는 (주)로아스(LOAS)의 AI 기반 음향 탐지 솔루션이다.

“로아스는 무인 기반으로 산업 시설의 소리를 분석해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채널 마이크로폰 센서를 이용한 음향 탐지, 추적 및 분석 시스템을 구현해 특정 산업 설비의 균열 및 배관 누수를 감지하고, 이상 소음 발생 시 이를 실시간 영상으로 전달해 해당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아스는 혁신적인 첨단 음향 검사 엔진 ‘AI 스쿼어’를 자체 개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 음원 위치 추적과 이상 소음을 분석해 음향을 이미지화하는 기술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재현 대표는 “3차원 공간 내에서 특정 음향 데이터만을 식별해 이상 현상을 진단할 수 있는 로아스 소프트웨어 엔진의 핵심 기술 개발까지는 순한 어려움이 있었고, 연구진들이 주말까지 반납하며 2년 여의 시간 끝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라며 소회를 전했다.

로아스의 독자적인 기술인 AI 스쿼어가 탑재된 핵심 제품군 중 서부발전에 적용된 로봇 시스템은 ‘Tfoi’. 산업 설비에서 발생하는 이상 소음 및 가스배관의 누설, 전기 노이즈 등을 자동 탐지하는 통합관제 솔루션이다.

서부발전 맞춤형 로봇 시스템으로

동반상생 및 해외시장 진출

서부발전과는 2020년에 ‘사운드캠’이라고 하는 음향 카메라 계측기를 납품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 2023년에는 서부발전 주관 ‘발전데이터 활용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해 2등을 수상하면서 실증으로 이어졌다.

“2024년에 서인천발전본부에서 한 달 동안 데이터 수집 로봇 시스템 실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자율주행 맵을 그린 후 로봇을 동작한 바로 다음 날, 노후화된 고압배관의 LNG 미세 누출 3건을 찾아내면서 설비고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서부발전과 로아스는 함께 중소기업중앙



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 하반기 윈윈아너스’를 수상하기도 했다. 로아스에서는 이번 3월부터 6월까지 서부발전형 로봇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고도화 작업을 진행 후 자율주행 로봇 모델 Tfoi 2대를 서부발전의 발전소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Tfoi는 24시간 현장을 돌아다니며 음성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 시에 문제 지점을 점으로 찍어서 전달한다. 사용자는 모바일 및 컴퓨터 등을 활용해 웹에 접속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전달받은 이상 징후는 이미지 등 영상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서부발전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과 동반상생하려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큰 버팀목이 되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서부발전에 저희의 무인 기반 설비 진단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중대재해 저감 및 발전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해외 플랜트 사업 진출에도 로아스가 서비스의 한 축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인 설비 진단 시스템 수요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로아스의 로봇을 이용한 안전 진단 솔루션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올해 6곳의 해외 현지 기업에 진출할 예정이며, 오는 4월에는 스위스와 독일의 현지 기업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해상 풍력발전소 및 방위 산업용으로도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재현 대표와 로아스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산업 현장에 제공하고,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회사로 우뚝서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핑크박스가 사랑을 타고 소녀들을 찾아갑니다



▲ 영상 보러 가기



국가 생리대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하지만 여기에도 해당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의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빛에 가려진 그림자. 그 그림자 크기가 작아지고 빛이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서부발전은 6년 동안 매달 핑크박스를 포장하고, 배달하고 있습니다. 핑크박스에 생리대와 물티슈, 간식 그리고 엄마의 편지를 담고 꼼꼼하게 테이핑하는 서부발전 직원들. 박스가 쌓이는 만큼 마음의 온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번 달도 이렇게 핑크박스가 사랑을 타고 소녀들을 찾아갑니다.





1 오만 마나 태양광 프로젝트 준공 및 중동사무소 개소

한국서부발전은 1월 20일(현지시간) 오만 마나(Manah)에서 500MW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오만 마나 태양광발전소는 설비용량 500MW 규모로, 국내기업이 오만에서 수주한 최초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서부발전은 준공에 이어 오만 마나 태양광 발전소의 유지보수·관리를 담당한다. 서부발전은 1.5GW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아즈반(Ajban) 태양광 발전사업도 수주하며 중동 신재생에너지 시장 내 입지를 넓히고 있다.

한편, 서부발전은 1월 2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중동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중동사무소 개소는 서부발전이 지난 2023년 오만 마나 500MW 태양광 발전사업, 아랍에미리트 아즈반 1,500MW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한 이후 2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서부발전은 중동사무소를 거점으로 중동 친환경에너지 시장 지배력을 키울 계획이다.



2 'KOWEPO 혁신성장 프로젝트' 선포

한국서부발전은 2월 24일 태안 본사에서 '코웨포 혁신성장 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하고 100대 톱티어 혁신과제 이행을 위한 '코웨포 혁신성장 위원회'를 발족했다. 코웨포 혁신성장 프로젝트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 혁신을 추진하고 미래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톱티어 발전회사로 도약하려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경영개선 활동이다. 서부발전은 이번 프로젝트 선포를 통해 조직·인사체계 개편, 부채비율 관리와 순이익 증대를 위한 재무개선, 발전소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 등 당면 과제와 해외 신재생 에너지사업 확대, 국내 해상풍력단지 조성, 디지털 변환 발전소 구현 등 미래 성장에 대한 계획 등을 담아 혁신과제를 100개로 압축했다.



3 45년 수도권 전력공급 평택기력 '명예로운 퇴역'

45년간 수도권 전력공급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 평택 기력발전소가 임무를 마쳤다. 이에 서부발전은 2024년 12월 31일 평택발전본부에서 '평택기력 발전종료식'을 진행했다. 종료식에 참석한 이정복 사장은 "평택 기력발전소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만 한 시대를 책임졌던 그 웅장함과 위대함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택 기력발전소가 향후 세계 최고의 친환경 발전단지로 거듭나도록 정부,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 적극행정 우수 부서·직원 시상

한국서부발전은 1월 7일 태안 본사에서 '2024년 적극행정 우수부서·직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서부발전 감사실은 조직 내 소극행정을 없애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해마다 시상식을 실시한다. 이번 포상은 선제적이고 창의적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달성한 부서와 개인에게 주어졌다. 감사실은 19개 부서와 19명의 직원을 추천받아 서면 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6개 부서, 6명의 직원을 포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5 출자회사와 혁신방안 집중 토론

한국서부발전은 1월 13일 태안 본사에서 '2025년 제1차 출자회사 혁신 공유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부발전과 출자회사는 사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자회사 간 협력 방안과 발전 운영 최적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조직·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 사내 소통 채널 강화 등 조직 활성화 방안을 토의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모회사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 위변조 방지 디지털 시험성적서 관리 체계 선포

한국서부발전은 1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발전 5사, 한국에너지공단, 7개 시험기관과 '디지털 시험성적서 유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 시험성적서는 위변조 원천 차단 보안기술이 적용된 전자문서로 조작 위험이 있는 인쇄물 형태의 시험성적서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부발전은 시험기관과 협력해 지난해 9월 시험성적서와 관련 계약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는 디지털 시험성적서 관리 체계를 만들고 시범운영하고 있다.



7 전문가 강연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안 모색

한국서부발전은 1월 16일 태안 본사에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에이아이 혁신센터장을 초빙해 '2025년 생성형 에이아이(AI) 에이전트의 시대: 에너지 산업의 에이아이 대전환'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하정우 센터장은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전력 생산과 관리 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전력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지속 가능한 솔루션 마련 등과 관련한 정보도 공유했다.



9 설 명절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한국서부발전 임직원과 노동조합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22일 태안 서부, 동부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를 진행했다. 서부발전 노사는 상인들에게 따끈한 어묵꼬치와 핫팩을 나눠 주며 위로하고 전통시장의 볼거리, 먹거리를 홍보하는 데 힘썼다. 또 약 7,000만 원 상당의 내의와 이불, 식료품 등을 구매해 태안자원봉사센터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4개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지역 결손아동·위기임산부·독거어르신 등 소외계층에 전달되었다.



8 발전부문 최초 설비운영 인공지능 질의응답 서비스 제공

한국서부발전은 1월 20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인 '더블유피지피티(WP-GPT)'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더블유피지피티는 '발전 기술 업무 생성형 에이아이 구축사업'을 통해 개발에 돌입했다. 더블유피지피티는 내부 문서 1,432건을 학습하고 약 3만5,000건의 질의응답 데이터에 대한 추가 학습 과정을 거쳐 시범운영을 마쳤다. 더블유피지피티를 활용하면 발전소 설비 담당자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발전설비 분석, 현장 진단, 안전관리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10 교육기부 프로그램 '위피스쿨 15기' 수료식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1월 23일 태안 본사에서 '서부공감 위피스쿨' 15기 수료식을 개최하고 멘토링 과정을 수료한 대학생 8명에게 수료증과 15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위피스쿨 15기는 AI시대 흐름에 맞춰 디지털 기반의 교육 기회를 확대 운영하여 보다 풍성하게 진행했다. 위피스쿨은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서부발전이 2017년에 도입한 교육기부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11 발전소 운영혁신 이끌 '스마트기술 공모전'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2월 4일 회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마트기술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부발전은 설비 신뢰도 향상, 스마트 점검 구현, 업무 효율성 증대, 신사업모델 창출 등 5개 분야를 주제로 공모했으며, 사내외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6건 등 모두 1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제안자를 시상했다. 서부발전은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제안을 발전소 운영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13 정월대보름 맞아 전통문화 보존·주민화합 앞장

한국서부발전은 2월 12일 태안 경이정에서 진행된 '태안 범군민 중앙대제' 행사를 지원하며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사회 전통문화 보존과 주민화합을 위한 지역상생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섰다. 또한 같은 날 서부발전 임직원은 태안초등학교를 찾아 전통민속놀이 화합 한마당 행사에도 참여하며 태안군민 1,000여 명에게 따뜻한 음식과 경품 등을 전달했다.



12 산업부 국가보안업무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서부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안점검 결과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산업부는 41개 산하 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체계 등 보안업무 전반을 정밀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보안점검을 진행한다. 해당 평가에서 서부발전은 전체 평균 점수를 크게 웃돌아 점검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는 출입증 복제방지 시스템 도입, 보안 문화 내재화 활동, 유관 기관과의 공고한 협력체계 작동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14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2월 24일 태안발전본부에서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자립준비청년 6명은 자격증 취득, 협력 중소기업에서의 인턴십 경험 등을 발표하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얻었던 성장 경험을 공유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올해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역량강화 사업을 더욱 확대해 창업지원 사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서부발전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독자마당

<서부공감> 독자후기 이벤트

어대! 독자후기를 남기니 선물이 왔네!



새로운 테마로 새롭게 단장한 <서부공감> 3월호 잘 보셨나요?
<서부공감>은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에너지 삼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따끈따끈한 독자 후기를 기다립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열 분에게 커피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후기 남기러 가볼까요?

참여기간

4월 11일(금)까지

참여는 여기로!



새롭게 탄생한 위피를 소개합니다

서부발전의 ESG 경영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친환경 히어로 위피! 에너지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에너지가 낭비되고 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W더듬이가 예리하게 감지하고 신속, 정확하게 날아가죠.
그런 위피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더욱 귀여워진 위피를 소개합니다~

이름	위피
나이	추정불가
탄생 비화	반딧불이 알에서 태어났다. 비 내리는 어느 날 엄청난 확률로 혼자 번개 맞았으며, 다른 알들이 깨어나 성충에서 반딧불이가 될 때까지 미동도 없다가 다시 한 번 번개를 맞은 후 탄생했다.
성격	유행에 민감한 편이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유쾌한 성격이다.
좋아하는 것	지구. 지구를 좋아해 에너지와 환경에 관심이 많다.
싫어하는 것	더러움, 불친절, 불의. 부정적인 것과 마주하면 P벨트와 함께 빛나며 정화해 물리친다.
의외의 특징	동글한 외형과 달리 유연한 몸을 소유하고 있다. 반사신경 또한 빠르다.

W더듬이

에너지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
더듬이로 주위를
밝혀준다.

빨간 망토

빨간 망토로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P벨트

P자 벨트로
국민에게
행복 에너지를
전파한다.



※
위피 캐릭터는
서부발전의 로고 색과 같은
푸른 톤과 반딧불이의
밝은 노란빛을 띤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
보다 자세한
위피 소개는 여기로!